

중세국어 사잇소리의 표기와 기능*

박종희(원광대) · 권병로(군산대)

〈목 차〉

1. 머리말
2. 사잇소리의 표기 및 음가
3. 운율어(운율구) 경계 표시
4. 맺음말

1. 머리말

중세국어의 사잇소리와 사이시옷은 지금까지 많은 논의가 있었음에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 정의에서부터 표기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견해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원인이 사잇소리와 사이시옷을 동일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야기된 것으로 보고자 한다. 대부분의 논자들이 사잇소리와 사이시옷을 혼동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이 둘을 다르게 보더라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사이시옷의 본질과 기능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둘을 구별하지 않은 관계로 문제가 더욱

* 이 논문은 2010학년도 원광대학교의 교비 지원에 의해서 연구됨

복잡해진 것이 아닌가 한다. 사잇소리와 사이시옷을 동일한 것으로 보아 전자는 음운현상을, 그리고 후자는 표기법의 문제로 다루는 입장에서도 이것을 단순한 음운현상으로 보는 견해와 형태소로 보는 견해로 갈리어 더욱 복잡하게 보인다. 형태소로 보는 입장에서도 그것을 속격, 관형격, 합성명사 표지, 관계화, 강조 및 통사적인 과격을 해소하는 기능, 수식어 표지, 형태소경계 표시 등으로 그 의견이 다양하다.

이 소고의 입장은 중세국어의 사잇소리와 사이시옷은 그 본질이 서로 다른 것으로 본다. 사잇소리는 운율어(운율구) 경계를 이루는 후두협착 자질이 표면에 드러나 담화 효과를 높이므로 일종의 담화표지와 같은 기능을 하는 반면, 사이시옷은 합성명사 및 합성동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두 어간 사이의 차연 관계 즉, 상관적 차이(pertinent difference)의 관계를 표시하기 위한 문법소로 보고자 한다. 서로 다른 기능을 하지만 그 표기가 각각 ‘ㅅ’으로 나타나 혼동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본다. 후두폐쇄음이 운율어(운율구) 경계의 기정치를 이루는 사실은 여러 언어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고저와 억양의 굴곡이 운율어(운율구) 경계와 상호 관계를 이루므로 그 위치에서 후두음의 기정치 값이 출현하기 때문이다. 이 기정치 값은 비변별적이어서 하위 음소적으로 작용하는 자질의 신분을 가지므로 표기법에 반영하기가 어렵다. 중세국어의 사잇소리 표기가 ‘ㄱ, ㄷ, ㅂ, ㅍ, ㅇ, ㅅ, ㅈ’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후에 ‘ㅅ’으로 통일된 결과, 합성명사 및 합성동사의 不一而二식의 차연을 의미하는 문법소인 사이시옷의 ‘ㅅ’과 같게 된 것이다. 사잇소리는 운율어 경계에서 드러나는 보편적인 현상임에 대하여, 사이시옷은 합성명사[고깃비] 및 합성동사[값돌다]에서 제한적으로 발생한다.¹⁾ ‘이시-’(존재)가 문법화하여 발생한 사이시옷의 ‘ㅅ’에 대한 논의는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담화표지로 쓰인 중세국어의 사잇소리 표기를 중심으로 하여 그 음가 및 기능을 고찰하고자 한다.

1) 사잇소리와 사이시옷을 서로 다른 현상으로 파악하려 했던 견해로는 김종택(1980), 박창원(1997) 참조. 여기서 이 논문들의 성과나 문제점은 다루지 않는다.

2. 사잇소리의 표기 및 음가

일찍이 최현배(1941: 479-493)에서는 사잇소리를 그 옷말의 끝소리가 그 이랫말의 첫소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그 옷말의 김(勢)을 딱 막아 끊음에 있다 하고, ‘ㄱ, ㄷ, ㅂ, ㅍ, ㅇ, ㅅ, ㅈ’ 등은 달침소리로 가정된 소리로 보았다. 허웅(1985: 441-442)은 현대어의 사잇소리는 울림소리 사이의 소리가 약화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 그 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 그 앞에 /ㄷ/을 덧붙이는 것이라 하고 15세기에는 이러한 경우에 그 사이에 ‘소리 없는 휴식’(사잇소리)을 둔 것으로 보았다. 이 사잇소리(소리 없는 휴식)는 입안의 여러 군데를 막으면서 울림을 막았던 듯하다 하고 사잇글자로서는 ‘ㄱ, ㄷ, ㅂ, ㅍ, ㅇ, ㅅ, ㅈ’의 여섯자가 쓰인다고 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조음작용을 들어 여러 군데서 나는, 소리 없는 휴식은 혀끝을 가볍게 잇몸으로 향하여 접근시키면서 휴식을 취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듯하여 결정적으로 [s] 소리를 냈거나, 또는 결정적으로 [t] 소리를 냈거나 하는 일은 없는 듯하다고 하였다. 이처럼 최현배와 허웅은 사잇소리를 완전하고 독립적인 음성으로 보지 않았다.

이외에도 사잇소리 ‘ㅅ’을 문자 그대로 [s], [t], [ʔ]로 보는 견해들이 있으나²⁾, 대부분 사이시옷의 음가를 추정한 것들이어서, 사잇소리와 사이시옷을 엄격히 구분하는 본고의 입장에서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일반적으로 운울어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삽입되는 후두음은 [h] 또는 [ʔ]인데, 중세국어에서는 후두협착 자질([ʔ])이 사잇소리로 기능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예문이 이를 보여 준다.

(1) 앞종성	사잇소리	예
ㅇ	ㄱ	洪餽 ㄱ 字종(언훈)
ㄴ	ㄷ	君군 ㄷ 字종(언훈)
ㅁ	ㅂ	覃땀 ㅂ 字종(언훈)
ㅁ	ㅍ	斗똥 ㅍ 字종(언훈)
ㅇ	ㅇ	快靨 ㅇ 字종(언훈)

2) “국어의 음운 변화 현상 중 가장 널리 일반에게 인식되어 있으면서도 가장 불투명하게 인식되어 온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사잇소리’에 관한 음운 현상이 아닐까 한다.”(유창돈 1963: 1)

- (2) 兄ㄱ 뽀(용 20)
 늣즈스(석 二十三 25)
 사륙서리(석 二十四 30)
 하늣벼리(용 50)

앞 낱말의 끝 종성이 비음 ‘ㅇ, ㄴ, ㄹ, ㅁ’과 유음 ‘ㄹ’ 및 모음인 경우를 보여 주는데, 이 경우의 사잇소리는 이들 앞 종성과 조음 위치가 같은 폐쇄음자 ‘ㄱ, ㄷ, ㅂ, ㅈ, ㅇ’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 이 문자들 각각이 고유의 사잇소리를 나타낸다고 볼 수는 없다. 이는 비변별적이며 하위 분절적인 지위를 갖는 후두협착 자질을 표기할 수 있는 고유의 문자가 마련되지 않아 각 조음 위치에 따라 첨가한 동일한 사잇소리를 달리 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1), (2)의 예들은 후두협착 자질([ʔ])을 이용하여 운율어 즉, 음운론적 단어 경계를 표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사잇소리로 쓰인 ‘ㅅ’의 음가도 [s]가 아닌 [ʔ]이다. ‘늣즈스(월석 21:215)’와 ‘늣즈스(월석 1:13)’가 공존하는 사실이나 사잇소리로 ‘ㄱ, ㄷ, ㅂ, ㅇ’ 등이 혼용되는 예(1), (2)를 보아 알 수 있다. 이때의 음절말 ‘ㄷ’이나 ‘ㅅ’ 혹은 ‘ㄱ, ㄷ, ㅂ, ㅇ’ 등이 제 음가대로 조음되었을 리는 만무하고, 동일한 음가를 표기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들은 입성을 표시하기 위한 부호임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으로 박창원(1996: 192)은 보고 있다. 즉, 음절말 ‘ㅅ’이 ‘ㅇ’의 음가와 동일하게 사용되었다는 것을 ‘잘드르싣분(월석 2:62), 드웁ㄱ장(월석 1:47)’의 예를 들어 증명하고 있다. 그리고 입성이 빨리 끝나는(促急) 소리라면, 그것은 ‘허파에서 외부로 나오는 공기의 흐름을 재빠르게 순간적으로 중단시키라’는 지시이므로 이것을 편의상 [ʔ]로 표기한다면 종성 ‘ㅅ’의 음가는 [ʔ]이기도 했다고 결론짓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본고에서 제기하는 후두협착 자질 ([ʔ])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음절말 위치의 ‘ㅅ’은 다른 자음들과 마찬가지로 내파화 과정을 겪어, [s]가 된 후에 다시 탈구강음화 과정을 경험하면 후두음 [ʔ]이 된다. 사잇소리 표기로 사용된 음절말의 ‘ㅅ’은 본래의 [s]가 아니라, 이미 내파화 과정과 탈구강음화를 겪은 [sʔ]~[ʔ] 정도의 음인 것으로 보인다. 이 음들은 후두협착 자질과 변이의 관계를 이루면서 운율어 경계 표시의 기능을 담당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³⁾

언어의 발달 과정에서, 주로 무성 폐쇄음들이 [ʔ]나 [h]와 같은 후두음으로 변한 과정을 볼 수 있다. 즉 원시 인구어의 /k/가 원시 게르만어에서 /x/로 변했다가 다시 현대 영어에서 /h/로 변한 현상이 대표적이다(P.I.E. */kerd/ > Proto Gmc. */xert/ > /hert/ > Mod. E. heart). 또한 표준 영어의 /t, k/가 스코틀랜드 영어에서는 /ʔ/로 대체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을 Lass(1984: 179)는 탈구강음화(deoralization)라 불렀다. 그 이유는 아래에서 보듯 구강음 자질과 후두음 자질로 이루어진 /p, t, k/가 구강음 자질을 잃고 후두음인 [ʔ]로 변하기 때문이다. 구강의 조음동작 모형(oral gesture matrix) 및 후두 조음동작 모형(laryngeal gesture matrix)으로 분절음이 구성된 것으로 보면, 각각의 하위 모형들은 독자적인 것이어서 규칙에 의해 개별적으로 활동한다. 이를 근거로 분절음을 [[구강음모형][후두음모형]]([[oral][laryn]])으로 표시하면, 구강음 모형을 탈락시키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3) \begin{bmatrix} \text{oral} \\ \text{[laryn]} \end{bmatrix} \rightarrow \begin{bmatrix} \emptyset \\ \text{[laryn]} \end{bmatrix}$$

서로 다른 조음위치를 갖는 폐쇄음에서 일어나는 탈구강음화는 각 폐쇄 길이에 따라 차이를 나타낸다. 폐쇄 길이가 제일 짧은 경우에 가장 먼저 탈구강음화가 일어나고, 폐쇄 길이가 더 긴 경우는 늦게 일어난다. 그런데 설정음의 폐쇄 길이는 순음과 연구개 폐쇄음보다 더욱 짧으며, 혀끝 움직임은 입술 및 혀등의 움직임보다 속도가 더 빠르다(Kuehn and Moll 1976). 그리하여 탈구강음화는 설정음에서 먼저 발생하고 다른 조음위치를 가진 폐쇄음에서는 더 늦게 발생한다. 이러한 현상은 영어의 여러 방언에서도 어말의 't>'는 널리 확산되어 있는데 반해서 어말의 p, ʔ 및 k, ʔ는 아직도 변이를 보이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음절말 's'은 탈구강음화를 먼저 겪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15세기 국어의 음절말 's'([sʔ])이 탈구강음화를 경

3) 사잇소리 및 음절말 's'을 [ʔ](성문 폐쇄음 glottal stop)로 보는 견해는 김정수(1989), 박창원(1997), 김경아(1992) 등 참조. 복합분절음(complex segment) [sʔ]으로 보는 견해는 줄고(1988) 참조.

협하면 구강음 [s]가 탈락하므로 결국 후두 높이 특질(LH)만 남게 된다. 여기서 [ʔ]는 LH-[하강성]을 지시한다. 그리하여 단어 및 음절말의 보강 작용과 탈구강음화를 경험한 음절말의 ‘ㅅ’은 15세기를 지나면서 [ʔ]과 유사한 변이음을 갖게 된다. 다음의 표기에들은 이 현상을 보여 준다(김경아 1992).

- (4)a. 드르싹 부니오<월석 2:67> b. 드름 數<월석 8:40>
 그츨 슷 업스니<월석 7:58> 많쁘디<월석 17:33>
 드랴 華瓶<월석 10:119> 숲진<월석 8:10>

(4a)에서 관형형어미 ‘ㄹㅇ’ 대신에 ‘ㄹㅅ’이 쓰일 수 있었고, (4b)에서 사이시옷이 쓰일 자리에 ‘ㅇ’이 쓰일 수 있었던 것은 ‘ㅅ’이 [ʔ]과 유사한 변이음으로 실현되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⁴⁾

탈구강음화를 경험하여 사잇소리로 발달한 ‘ㅅ’은 본래 성문음화한 /s/(glottalized ‘s’/sʔ/)로서 자음군(obstuent + glottal stop)으로 존재하는 /sʔ/와는 구별된다. /sʔ/는 상관적인 차이의 관계를 표시하는 형태소인 사이시옷의 음가로 추정되는데, 단위 분절음 /sʔ/(/sʔ/)와 음성적인 유사성을 가지지만 동일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음군 /sʔ/는 희소하므로 /sʔ/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혼동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더욱이 비강세의 어말 음절에서는 이들을 변별하기가 더욱 어려웠을 것이다. 이러한 인지적 유사성 때문에 [ʔ]~[sʔ]~[sʔ]은 변이의 관계를 이루어 사잇소리와 사이시옷으로 사용된 ‘ㅅ’이 역사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⁵⁾

자음군 /sʔ/와 단위 음소 /sʔ/(/sʔ/)의 대립은 Klamath어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고 한다(Blevins 2001). 이 언어에서 CV-형의 중복형태소가 접두될 때 모음의 약화/탈락 현상이 발생하는데, 어간 첫음절의 단모음은 폐음절일 경우

4) ‘ㄹㅇ’대신에 ‘ㄹㅅ’이 쓰인 예를 더 들면 다음과 같다(㉮은 운운어): (㉮)㉮(드르미)(능엄 8:119), (㉮)㉮(중성)(월석 21:113)(권용경 1992), (㉮)㉮(중성)(한창 306), 서되 (드랴)㉮(華瓶)(월석 10:119)(권용경 1992), (다울)㉮(없시) 호리라(능엄 1:4), (아랴)㉮(아니며)(육조 상:47), 잘 (드르 싹)㉮(분)(월석 2:62)

5) 사이시옷이 표기된 ‘고갯배’의 경우, [고갯배]와 [고기배]가 변이를 보이는 이유는 /sʔ/와 /sʔ/의 인지적 유사성 때문으로 볼 수 있다. Klamath어에서도 ‘장애음 + 성문과열음’으로 이루어진 자음군은 정상적인 발화에서 단일 단위음인 경우와 자유로운 변이를 이룬다고 한다(Barker 1964:219, 223).

에는 a(=[a])로 약화되고 개음절일 경우에는 탈락한다. 한 예를 들면, pɛpɑcʔa m'c 와 pɛpɔ'am'c '크고 오래된 받침대'에서 이러한 모음의 약화/탈락 과정이 나타난다. 자음군 /cʔ/을 가진 어형은 /...pɛcʔa.../ → /...pɑcʔa.../와 같이 모음이 약화되는 반면에, 하나의 단일 음소 /c'/을 가진 어형은 /...pɛc'a.../ → /...pɑc'a.../와 같이 어간 모음의 개음절로부터 모음을 탈락시킨다. 이러한 사실은 '장애음 + 성문폐쇄음'이 자음군임을 보여 주므로 /sʔ/를 자음군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더욱 높여 준다.

(5) 자음군 /sʔ/ 앞에서 일어나는 모음 약화 현상

비접두화	접두화	어휘 의미
hosʔa	hohasʔa	'생각하다'
nt'osʔa	snont'asʔa	'부풀다'

(5)의 어형에서, /sʔ/는 단일한 분절음이 아니라 자음군으로서 작용한다. 왜냐하면 폐음절 환경에서는 모음을 약화시키고 개음절 환경에서는 모음을 탈락시키는데, (5)에서는 모음을 탈락시키지 않고 약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sʔ/가 하나의 단위 음소인 성문화음이라면, 개음절 환경을 이루어 모음이 탈락함으로 어간 모음이 표면에 부재하게 될 것이다. /sʔ/가 자음군 /s/+ʔ/임을 보여 주는 또 다른 증거는 그 분포상의 제약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언어의 /ʔ/는 오직 모음 앞 위치에서만 나타난다. 그런데 /sʔ/가 출현하는 모든 위치도 모음 앞 환경에 국한되는데, 다른 분절음들은 이 위치에 국한되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분포상의 평행성도 /sʔ/를 자음군으로 분석 가능케 해준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에 따르면, 운율어 경계를 표시해 주는 사잇소리는 /sʔ/에서 발달한 /ʔ/이며 이는 사이시옷인 자음군 /sʔ/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후두음은 기원적으로 운율어 경계에서 후두의 협착과 확장의 조음 동작으로부터 발생한 것으로서, 변별성을 갖지 않는다. 이러한 운율적인 후두음 분포를 가진 전형적인 언어로서 영어를 들 수 있다. 영어에서, 모음으로 시작되는 단어들은 운율어의 첫머리에 성문 폐쇄음을 선행시킨다. 그러나 이때의 성문 폐쇄음은 비변별적이어서, 실제로 많은 영어 화자들은 단어초에서 성

문 폐쇄음을 인지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가지며 또한 성문 폐쇄를 선행하지 않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발화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갖는다. ?V으로 시작하는 단어와 V...로 시작하는 단어 사이에 대립이 존재하지 않는다. 발화초 또는 단어초의 모음 앞에 비음소적인 성문 폐쇄음을 수의적으로 선행시키기도 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많은 언어에서 발견된다. 이와 같이 예측 가능한 성문 폐쇄음은 어두 모음의 한 자질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후두음 삽입은 운율 영역 내의 처음에만 국한되지 않고 가장자리 끝에서도 후두음이 삽입된다.⁶⁾ 이와 같이 운율어 경계와 후두음은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운율어의 왼쪽 경계에서 후두음이 삽입되는($\emptyset > h/PrWd_V$) 현상은 Yurok어 및 Wiyot에서 나타난다(Blevins 2008:89).

(6)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Proto-Algonquian) : 단어 초의 h(Yurok)

a. PA *e:wa 'he goes' < *a:- 'go' ; Y *ho- in heyok' 'I go'

W *ho- in hol - 'go, walk'

b. PA *ekwa 'the other says so to him' ; cf. Y h- in hek' 'I say' , hi?

'it is said', W h- 'say to' , hi- 'be said'

(6)의 예들은 모음으로 시작되는 단어들이 역사적으로 어두의 h를 획득하였음을 보여 준다. 그런데 이 음변화는 운율어 경계에서 일어났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운율어의 왼쪽 경계에 h가 삽입되는 역사적인 과정은 단어말의 오른쪽 경계에서도 그대로 h가 삽입된다. 우리말의 사잇소리 현상도 이와 유사하게 운율어의 오른쪽 끝에 성문협착 자질이 삽입되어 운율어 경계를 표시해주는 음운현상으로 볼 수 있다.

운율어 경계에 비변별적인 후두음이 출현하는 것은 여러 언어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음 패턴이다. 운율어 경계를 표시하는데 있어 어째서 후두음 [h] 및 [ʔ]가 자연스러운가, 또는 운율어 경계에서 발생의 기원을 두고 있는 이 후두음들이 어째서 비변별적인가에 대한 일차적인 대답은 후두음의 기정치 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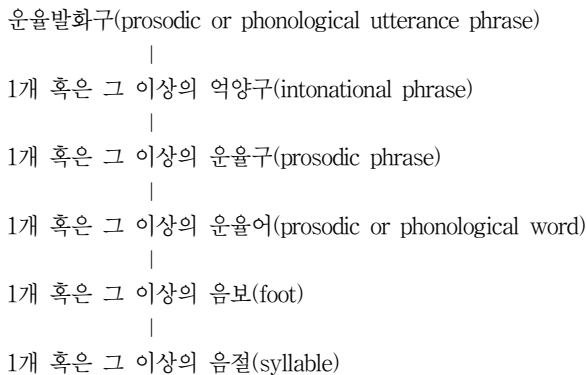
6) 운율어의 가장자리 끝에 후두음을 삽입시키는($\emptyset \rightarrow ?/V_PrWd$) 언어들은 다음과 같다 (Blevins 2001:89). Atayal, Saisiyat, Pazeh, Bunun, Kavalan, Paiwan, Puyuma, Amis: Yami, Itbayaten, Ivatan, Casiguran Dumagat, Brunei Malay, Sarawak Malay, Taboyan, Lawangan, Kapuas, Ba'aman, Katingan, Dohoi, Murung, Tunjung, Lou, Sundanese.

이 운율어 경계를 규정짓는 고저 승강(pitch contours)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라 말할 수 있다. 운율어 경계는 전형적으로 후두 기체에 의해 시발된 고저 승강에 의해 표시된다. 따라서 후두의 고정화된 조음동작을 발생시켜 일정한 운율 경계를 표시하므로 후두음이 관여하게 된다. 예를 들면, 변별적인 고저 액센트가 상실되면 어말에서 성문 폐쇄음이 발생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차적인 가설 이외에도 이러한 음 패턴의 높은 사용빈도수, 그들의 규칙성, 그리고 하위 음소적인 성질 등은 음성적으로 자연스러운 조건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Blevins 2008:91).

3. 운율어(운율구) 경계 표시

운율음운론(Prosodic Phonology)에서는 음운규칙이 적용되는 영역의 문제를 다룬다. 어휘부, 음운부, 통사부, 의미해석부가 각각 자율적으로 존재하면서 상호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음운규칙은 단어의 내부구조 또는 통사표지에 직접 작용하지 않고 어휘/통사부-음운부의 교량 역할을 하는 운율영역 배당 규칙에 의해 음운영역에 자유로이 접근한다. 그리고 모든 발화는 형태 · 통사부에서 투사된 운율위계 구조를 갖는다. Selkirk(1986)가 제시한 운율위계 구조는 다음과 같다.

(7) Selkirk(1986: 384)의 운율위계 구조



Kang(1994)에서는 국어의 운율어를 도출하기 위하여, Selkirk(1986)의 Xo [세팅을 단어 내로 연장하여 어휘적인 lexo[매개변인을 제안하고, 국어의 운율어 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 (8) 국어의 운율어 규칙(Kang 1994)
 lexo[→ω((lex = 어휘범주)

이 규칙에 의해 형태 · 통사구조로부터 운율어가 사상될 때, 그 방향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실행된다. 그리고 어휘부 안에서 아직 형태소의 내부 괄호가 소거되지 않았을 때 운율어가 도출된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면서 형태구조의 내부 괄호가 어휘범주로 표시되어 있으면 거기에 하나의 운율어를 표시한다. 그리하여 N[N[접두사 N[어간] 접미사]는'ω(..... ω(.....'가 되며, N[N[N[어간] N[어간] 접미사]는'ω(..... ω(.....'가 된다.

3.1. 운율어 경계(ω)에 나타나는 사잇소리

다음 예들은 합성어라고 확인하기 어려워 파생어로 분석되었던 예들인데 (권용경 1993), 이들은 (8)에 의해 운율어 경계(ω)를 가진다. 의미 전달에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어근과 접미사 사이의 운율어 경계에 담화표지로 사잇소리가 드러나면 앞 음절말에 ‘ㅅ’이 병서되어 나타난다.

- (9) (낱)ω(살)(법화 2:13)/눈쌀(월석 2:41), (값)ω(숨)(내훈 서:7)/말씀 (용가 13)/
 말숨(원각 서:11), (목숨)ω(죽)(몽산 7)/ㅁ△ ㅁㅁ죽(불정 7), (값)ω(간)(석상 13:53)/잠판(월석 9:29), (경)ω(ㄱ)(능엄 6:99)

용언 어간에 ‘-기-, -잡/접-’등의 접미사가 결합할 때에도 각각 하나의 운율어를 이룬다고 보면 그 경계에 사잇소리가 삽입될 수 있다. 이 예들은 지금까지의 견해들로서는 잘 설명되지 않은 예들이었다(권용경 1993). ‘값기다’가 ‘답싸다’로 표기되는 것은 이 ‘ㅅ’이 [ʔ]로 변했으며, 그로 인해 후자가 이미 하나의 운율어로 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 (10) (답)ㄴ(기다)(두초 10:39)/답끼다(월석 17:16)(들볶이다, 고민하다), (畵)ㄴ(기다)(금삼 5:21)/습끼다(금삼 3:62)(삼키다), (답)ㄴ(갑다)(원각 하 1-1, 17)/답잡다(능엄 2:31)(답답하다)

‘-되다’를 접미사로 보면(권용경 1993), ‘좁ㅅ되다’(한청 239)에서도 ‘ㅅ’이 운울어 경계에 표기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훈몽자회의 예들(권용경 1992)은 ‘ㅅ’이 앞 음절말에 병서되지 않고 운울어 경계에 표기되었다. 이는 최세진 개인의 경향인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훈과 음으로 구성된 운울어의 경계에 사잇소리가 표시된 것임을 보여준다.

- (11) (간)ㄴㅅ(간)(肝)(자회 상:27), (석경)ㄴㅅ(경)(磬)(자회 중:32), (경간)ㄴㅅ(간)(癩)(자회 중:34)

조사는 그 앞의 체언과 하나의 운울어를 형성하므로, 이때는 조사(애/에, 과, 로, 으로부터, 마다, 만) 뒤에 사잇소리 표기가 나타난다. ‘前生앳이리’(석상 6:9)의 경우, ‘前生앳’와 ‘이리’는 각각 하나의 운울어로서 이 경계에 사잇소리가 드러나(前生앳)ㄴ(이리)가 된 것으로 본다. 이런 유형의 예(이광호 1993에 제시됨)를 더 들면 다음과 같다.

- (12) (楚國앳)ㄴ(太子氣를), (鴨江앳)ㄴ(將軍氣를)(용가 38), (虛空앳)ㄴ(白日이)(금삼 4:8), (四禪王으릇)ㄴ(우흔)(월석 1:50), (忉利天으릇) ㄴ(아래) 다 낄은 마리라(월석 2:39)

‘제여곰, 흐오사, 죠고마, 네, 이제, 아래, 몬져, 샹네, 물, 흐오아’등이 부사로 기능하는 것으로 보면(허웅 1975:102-3, 이광호 1993), 이 부사어들도 각각 운울어를 이루므로 그 오른쪽 경계에 사잇소리가 나타나게 된다.

- (13) (제여곰)ㄴ(因緣으로)(석상 6:39), (죤고맛)ㄴ(네) 智慧잇는들(육조 상:19), 네(죤고맛)ㄴ(티를) 밍ㄱ로라(두해-초 6:44), (넛)ㄴ(자취를) (이젯)ㄴ(사르미)(두초 14:1), 先佛은(몬젯)ㄴ(부테라)(석상 19:25)

부사어 다음의 체언들도 각각 하나의 운율어를 이루므로 그 경계에서 사잇 소리가 드러난다. 이 예들에 대해 김정수(1989:15)는‘부사어’의 강조로, 그리고 임흥빈(1981)에서는‘통사적인 파격의 해소’로 가능하다고 보았다.

- (14) 곧 地 (우췌)ᄇ(等列이시니) 地뫼 알뵈 아닌 둘 分擘히니라(법화 1:38), (하늘 뫼)ᄇ(문계며) 짜흐뫼 後 | 니(금삼 3:63), (世間엿) ᄇ(이른) 놀와 다뫼 議論 흐노노(두해-초 21:23)

관형어와 체언도 각각 하나의 운율어를 이루어 그 경계에서 사잇소리가 드러날 수 있다. 아래 예들은‘스’의 강조 기능을 보이기 위하여 김정수(1989:15)가 제시한 예들인데, 이들은 또한 본고의 입장을 지지해 주기도 한다. 여기서는 ‘스’이 통사적 파격의 해소 기능을 보여주지 않는다.

- (15) (뵈긔)ᄇ(사르뫼) 嫌猜를 툃디 말라(두해-초 8:33), (瓶잇)ᄇ(물이) 뻬며(월곡 178), (乃終)ᄇ(소리)(세훈민 11), 뫼 (間)ᄇ(지뵈)(용가 110), (사뫼)ᄇ(쁘 디리잇가)(용가 15)

3.2. 운율구 경계(Ø)에 나타나는 사잇소리

Kim(2006)에 의하면, W1과 W2가 운율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그 첫째는 성분통어 제약(C-command constraint)으로서 W1은 W2로부터 성분통어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성분통어의 개념은 Reinhart(1981)를 따르고 있는데, W1과 W2가 서로 지배관계에 있지 않고 W1을 지배하는 첫 번째 분지마디(branching node)가 W2도 지배하면 W1과 W2는 서로를 성분통어할 수 있다. Kim은 Reinhart의 성분통어 개념을 이용하여 다음의 성분통어 제약(C-command constraint)을 제안하였다.

- (16) 성분통어
α와 β가 하나의 운율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α가 β에 성분통어 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통사구조를 참조하는 제약으로 OCP(XP)를 제안한다. 이 제약은 동일한 최대투사범주가 하나의 운율구 속에 나타나는 것을 금지하는 제약이다. 예를 들면 $\{N' N'\}$, $\{V' V'\}$, $\{A' A'\}$, $\{Ad' Ad'\}$ 와 같은 운율구가 형성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등위 접속된 최대투사범주들이 동일한 운율구 속에 나타날 수 없음을, 그리고 주어인 N' 와 목적어인 N' 가 동일한 운율구에 들어 갈 수 없음을, 또한 간접 목적어 N' 와 직접 목적어 N' 가 동일한 운율구에 들어 갈 수 없음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제약이다.

(18) OCP(XP)

동일한 최대투사범주들이 하나의 운율구 내에 나타나면 안 된다.

이외에도 ‘운율구최소길이’ 제약과 계층정렬 제약을 제시했다.

(19) 운율구최소길이 제약(P-phrase minimality)

분지하지 않는 한 단어짜리 운율구는 금지된다.

(20) 계층정렬 제약(hierarchical alignment)

운율어는 상위의 운율구에 ‘적절하게’(properly) 정렬되어야 한다.

운율구를 제대로 정의하기 위해서는 통사적 특질을 참조하는 제약뿐만 아니라 음운론적 무계를 통제하는 제약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성분통어 제약’과 OCP(XP)는 통사적 특질을 참조하는 제약이며, 운율구최소길이 제약과 계층정렬 제약은 음운론적 무계를 통제하는 제약이다.

이 제안에 따라 중세국어의 운율구를 결정할 수 있다. 주어, 목적어, 부사어는 뒤에 오는 서술어와 성분통어를 이루지 않음으로 서로 다른 운율구를 형성한다. 다음 예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최남희 1995:227), 운율구 경계에서도 운율어 경계와 마찬가지로 사잇소리가 드러난다.

- (21) {그릿}Ø{혼초초헌여} 뒤웃븐 므스물 (석보 6:8), {이 밧 後 入 부텃}Ø{기티논 괴결이니} 모로매 모다 삼가라(석보 23:13), 一時랏 말도 {부텃}Ø{기티산 마리시니}(법화 1:20)

문장과 체언 사이에서도 운율구가 형성되어 그 경계에 사잇소리가 드러나는데, 그 예는 다음과 같다.⁷⁾ 아래 예들은 간접인용문, 의문범어미, 공동범어미 뒤에 ‘ㅅ’을 연결하여 관형어로 만드는 용법으로 보아 왔으나 여기서는 이들이 종결어미(-닷) 및 연결어미(-것)임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된 담화표지로 본다.

- (22) {世尊은 세계에 못 尊히시닷}Ø(쁘디라){석상 서:5}, {空大란 마른 虛空이 크닷}Ø(마리라){칠대 8}, {廣熾는 너비 光明이 비취닷}Ø(쁘디오){월석 2:9}, {衆生濟度호노랏}Ø(므스미) 이시면{금삼 1:13}, {大覺仙이랏}Ø(일흠){금삼 2:15}

부사어와 체언 사이에서도 ‘ㅅ’이 표기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이도 역시 다음 예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부사어와 체언이 각각의 운율구를 이루므로 그 경계 사이에서 사잇소리가 드러나고 있음을 말해 준다.

- (23) 卽欲死는 {너모 사랑호얏}Ø(마리라){두해-초 18:8}, 죠고맛 {빅 토크것}Ø(쁘들) 닛디 못호리로다{두해-초 15:55}, 正히 이 {無上 佛道를 일우렛}Ø(誓願이니){원각, 하 1-1:5}

동일한 최대투사범주들이 하나의 운율구 내에 나타나는 것을 금지하는 OCP(XP) 제약을 지키기 위해 다음 예는 두 개의 운율구를 이룬다. 이때 운율구 경계 사이에 사잇소리가 나타난다.

- (24){動과 靜갯}Ø(두 相이) 다 나디 아니호야{능엄 6:2}
 {플와 나모왓}Ø(세월스나조히){두초 23:51}
 {더와 나왓}Ø(상이 업스샤문){능엄 5:69}

그러나 운율어(구) 경계에서 선행어의 음절말 자음이 ‘ㄱ, ㄷ, ㅂ’일 경우에는

7) 본고에 제시된 예는 임흥빈(1981), 이광호(1993), 김정수(1989) 등에서 가져온 것임. 그런데 다음 예에서는 문장 뒤에 ‘ㅅ’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수의적이어서 ‘ㅅ’이 통사적 파격의 해소 기능과 관련이 없어 보인다. ‘菩提心을 種子 | 라 일흠호느니{월석 9:20}’, ‘더 ㄱ새 걸나다 혼 쁘디니{월석 2:25}’, ‘高山이라 홀 ㅍ해셔{월석 1:27}’, ‘아들들히 아비 죽다 들고{월석 17:21}’, ‘이 ㅍ 썩 서르 아디 못호노라 니르디 말라{금삼 3:27}’ 등.

사잇소리 표기가 생략된다. 이는 선행어 음절말의 폐쇄음이 일으키는 경음화 현상이 후두 폐쇄음인 사잇소리의 음운 현상과 중복됨으로 인한 잉여성을 피하려는 조치인 것으로 볼 수 있다.

- (25) 뽕소리(두초 10:27), 꺾버치(두초 10:17), 門앞길혜(두초 10:16), 氣氣運(두초 10:18), 귀민터리(두초 10:35), 北녘사르미(두초 10:39), 윈넉귀(두초 11:14), 뽕안해(두초 11:23)

다음 예들은 명사와 명사가 결합하여 운율어 경계를 형성할지라도 관형구성을 이루어 중속 관계를 나타내므로 초점이 주어지지 않아 사이시옷이 표기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사이시옷은 일종의 담화표지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 (26) 뭉발(馬蹄) 기들오논(두초 10:16), 수플아래논(두초 10:21), ㄱ롭우훤(두초 10:23), 뽕 브렛 비논 하늘우회(두초 11:11)cf. 하늬오솔잡눗다(두초 10:11), 나그내 그려기논(두초 11:15)

사잇소리는 운율어(구) 경계에서 발생함으로 그 분포가 사이시옷과 겹쳐질 수 있다. 사이시옷의 발생 환경도 명사와 명사 사이, 또는 용언 어간과 어간 사이에서 발생하므로 그 발생 환경이 중복된다. 사잇소리의 환경은 일반적인데 대해 사이시옷의 환경은 더욱 제한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일 뿐이다. 사이시옷의 문제는 다른 기회에 논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발생 환경의 중복만을 언급하기로 한다. 이러한 사정은 다음 예(이광호 1993, 권용경 1993 참조)들이 잘 보여 주고 있다.

- (27) 뽕골(월석 2:41), 뽕길(석상 13:9), 뽕ㄱ(석상 11:25), 뽕결(석상 13:9), 버텨길(아미 7), 보룻들(월석 2:41), 늬즈스(월석 2:41)/늬쯔스(능엄 2:109)/늬즈스(두초 9:19)

석보상절의 다음 예들 중 합성명사 구성으로 볼 수 있는 예들에서 출현하는

‘ㅅ’은 사이시옷으로 보아야 한다. 사잇소리라는 보편적 현상 위에 사이시옷이라는 특수한 문법 현상이 겹쳐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이들을 사이시옷 현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사이시옷과 ‘의’의 관계는 존재와 소유, 근거와 원인, 평등관계와 종속관계의 차이와 같은 것으로서 사이시옷은 합성되는 두 요소의 원용 관계를 지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8) 緊那羅ᄃᆞᆫ소리 摩睺羅迦ᄃᆞᆫ소리 ㄸ소리 ㄹ소리 ㅂᄃᆞᆫ소리 地獄소리 畜生ᄃᆞᆫ소리 餓鬼ᄃᆞᆫ소리 比丘ᄃᆞᆫ소리 聲聞ᄃᆞᆫ소리 辟支佛ᄃᆞᆫ소리 菩薩ᄃᆞᆫ소리 부ᄃᆞᆫ소리 조ᄃᆞᆫ소리 ᄃᆞᆫ 고ᄃᆞᆫ로 니르ᄃᆞᆫᄃᆞᆫ(석상 19:14-15)

의사소통은 담화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담화를 이루는 문장의 구성 요소 중에는 그 문장의 명제 내용과는 직접 관련되지 않고 단지 화자의 발화 의도나 심리적 태도만을 드러내는 표지가 있다. 이 표지는 명제적 의미를 더욱 효과적으로 청자에게 전달하는 기능만을 가지므로 이를 담화표지라 할 수 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발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화자가 취하는 여러 전략 중의 하나로서 화자의 표현이 이를 통해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 담화표지는 화자가 담화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개입시키는 양상 표지인 것이다. 화자는 이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자기의 담화 목표를 달성하는데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담화 전략에 따라 다양한 담화표지를 사용한다(이희두 2007:80-81).

담화표지의 형태는 본디 한 개의 단어인 경우도 있고 구인 경우도 있는데, 이들 중에는 본디 담화표지로 기능하는 것도 있고 문법화를 거쳐 담화표지로 기능하는 것도 있다. 후자의 경우에, 대부분은 본디 어휘적 의미를 가진 내용이 그 어휘적 의미를 상실하고 담화적 기능어로 바뀌는 문법화에 의해 담화표지가 되지만, 본디 기능어이던 형태가 담화표지로 문법화한 것도 있다. 담화표지는 문장을 구성하는 구성 성분의 기능을 하지 못하므로, 문장에 독립적인 성분이라 할 수 있다.⁸⁾

8) 기능어가 문법화하여 담화표지로 사용된 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a. 이 연필요, 이것은 보기보다 잘 썬여져요.
 b. 이 연필, 이것은 보기보다 잘 썬여져요.
 c. *이 연필요, 이것은 보기보다 잘 썬여져.

중세국어에서 사잇소리 표기로 나타난 ‘ㅅ’은 문장의 명제 내용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지만, 화자의 발화 의도나 심리적 태도를 드러내어 명제적 의미를 더욱 효과적으로 청자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가진다. 또한 생략해도 비문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선행 요소를 강조하는 초점화 기능을 보이므로⁹⁾ 담화표지로 볼 수 있다.

4. 맺음말

중세국어의 사잇소리는 담화표지로서, 그리고 사이시옷은 문법형태소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았다. 사잇소리는 운율어(구) 경계에서 자연스럽게 후두 폐쇄음으로 나타나는데, 앞 음절말의 성질에 따라 ‘ㄱ, ㄷ, ㅂ, ㅃ, ㅆ, ㅈ, ㅊ, ㅅ’ 등으로 다양하게 표기된다. 또한 사잇소리는 명사 뒤, 부사 뒤, 조사 뒤, 어미 뒤, 어간 뒤 등 거의 모든 환경에 분포할 수 있다. 명제 내용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지만, 화자의 발화 의도나 심리적 태도를 드러내어 명제적 의미를 더욱 효과적으로 청자에게 전달하는 기능만을 가지므로 생략한다 하더라도 비문은 되지 않는다. 사잇소리의 본질은 후두 폐쇄음이므로 자연 선행 음절을 폐쇄시킨다. 그리하여 뒤에 오는 평음은 쉽게 경음화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사잇소리 표기인 ‘ㄱ, ㄷ, ㅂ, ㅃ, ㅆ’은 앞 음절의 종성이 갖는 조음위치에 따른 후두 음화를 지시한다. 이들과 마찬가지로 ‘ㅅ’도 후두음화한 [sʔ]였기 때문에 후에 사잇소리 표기가 ‘ㅅ’으로 통일될 수 있었다. [sʔ]가 탈구강음화를 경험하여 후두 폐쇄음이 되었기 때문이다. 운율어 경계는 고저 승강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그 자리에 기정치로서 후두 폐쇄음이 발생하는 것은 모든 언어에 공통되어 있다. 이 후두 폐쇄음인 사잇소리를 표면상에 실현시킴으로써 즉, 운율어(구) 경계를 명확하게 드러냄으로써 청자로 하여금 의미 파악을 쉽게 해 줄뿐 아니라,

a의 ‘연필요’의 ‘요’는 이 문장의 끝에 결합된 ‘요’와는 그 기능이 다르다. 즉 전자의 ‘요’는 선행 요소를 초점화하기 위한 담화표지로서 화자의 청자에 대한 심리적 거리를 좁혀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반면에, 후자의 ‘요’는 청자를 높여서 예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높임보조사이다. b에서 ‘연필요’의 ‘요’가 생략되더라도 비문이 되지 않음은 이 ‘요’가 담화표지이기 때문이고, c에서 문장의 끝에 결합된 ‘요’가 삭제되면 비문이 되는 것은 이것이 담화표지가 아니기 때문이다(김태엽 2000: 14).

9) 사잇소리 및 사이시옷의 강조 기능에 대해서는 김정수(1987, 1989, 2004, 2005) 참조.

경계 앞의 성분을 초점화하여 부수적인 강조의 효과도 얻게 된다.

각 어휘범주들과 문장성분들은 하나의 운율어를 구성함으로써 ‘사뭇 뵈’(용가 15), ‘乃終기소리’(세훈민 11) 및 ‘호오삿 일크로미리오’(금삼 4:11), ‘쪄고맛 비를’(두초 6:44), ‘늑살(법화 2:13) 등의 운율어 경계에 사잇소리 ‘ㅅ’이 나타난다. 그리고 ‘NP(명사)+조사’로 구성된 ‘虛空애 白日이’(금삼 4:8), ‘몸애 피’(월곡 4), ‘소리엿 니쓰리느’(세훈민 14), ‘우훗 等列이시니’(법화 1:38) 등도 하나의 운율어를 구성하므로 사잇소리 표기가 나타나고 있다. 용언의 경우에서도 어간과 접미사 사이에 사잇소리 표기가 나타나는데, 이들도 역시 각각의 운율어를 이룰 수 있어 사잇소리 표기가 가능했던 것이다. 운율구 경계에서도 동일한 설명을 할 수 있다. 성분통어 제약을 위배하거나 OCP(XP) 제약을 준수하는 성분들은 각각 독립된 하나의 운율구를 이루므로 그 경계에 사잇소리 표기가 나타날 수 있다. 체언 앞에 오는 인용문의 정동사 어미 ‘-다, -라’가 ‘-닷, -랏’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이들 사이에 억양구 경계가 성립하므로 가능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이들의 발생 환경의 공통점은 운율경계라는 점이다. 운율경계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후두 폐쇄음인 사잇소리를 드러냄으로써 각 문장성분들을 명확히 구분하여 의사소통의 효율을 높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기법 측면에서도 띄어쓰기가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잇소리 표기는 독자가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준다. 그러므로 중세국어의 사잇소리는 단순한 음운현상에 그치지 않고 담화표지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옥미(1994), 「한국어의 음절화」, 어학연구 30. 3, 서울대 어학연구소, 535-567면.
- 권용경(1992), 「중세국어의 ‘사이시옷’에 대한 고찰」, 국어학논집 1, 태동, 1-11면.
- 권용경(1993), 「15세기 국어 사이시옷의 예외적인 쓰임에 대하여」, 안병희(편), 국어사자료와 국어학의 연구 (416-425면), 서울: 문학과 지성사.
- 김경아(1992), 「중세국어 중성표기 ‘ㅅ’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 17, 113-139면.
- 김정수(1989), 「한말[韓語]의 사이소리 따위의 문법 기능」, 한글 206 호, 5-34면.
- 김정수(2005), 「옛말의 힘줄 사이가지와 힘줄 앞가지」, 한글 267호, 35-61면.
- 김종택(1980), 「사이소리 ‘ㅅ’과 형태소 ‘ㅅ’에 대하여」, 국어교육연구 12, 1-12면.
- 김차균(1992), 「사이 ㅅ의 음운론」, 국어학 22, 국어학회, 191-236면.
- 박종희(1988), 「15세기 국어의 복합분절음」, 원대논문집 22-1, 박종희 저, 1993, 국어음운론연구(Ⅱ), 원광대 출판국에 재수록.
- 박창원(1996), 『중세국어 자음 연구』, 한국문화사.
- 박창원(1997), 「사이소리와 사이시옷(1)」, 이화어문논집 15, 이화어문학회, 461-482면.
- 안병희(1968), 「중세국어의 속격어미 ‘-ㅅ’에 대하여」, 이승녕박사 송수기념논총, 을유문화사. (안병희 편, 1993, 국어사연구, 문학과 지성사에 재수록).
- 우민섭(1983), 「사이 ㅅ 연구」, 새국어교육 37, 333-354면.
- 유창돈(1963), 「ㄷ 첨가 현상의 연구」, 동방학지 7, 19-39면.
- 이광호(1993), 「중세국어의 ‘사이시옷’ 문제와 그 해석 방안」, 안병희(편), 국어사 자료와 국어학의 연구,(311-337면), 서울: 문학과 지성사.
- 이현규(1982), 「‘사이시옷’의 형태와 기능」, 한글 176, 179-209면.
- 이희두(2007), 「중세국어의 담화표지 ‘ㅣ’에 대하여」, 한국언어문학63, 79-103면.

- 임흥빈(1981), 「사이시옷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국어학 10, 1-35면.
- 최남희(1995), 「사잇소리에 대하여」, 한말연구 1, 119-242면.
- Kim, No-Ju. 2006. A phonological weight effect on prosodic phrasing in Seoul Korean. *Studies in Phonetics, Phonology and Morphology* 12(1), 3-25.
- Blevins, Juliette. 2001. Klamath /sʔ/ clusters. *International Journal of American Linguistics* 67, 467-474.
- _____. 2008. Consonant epenthesis : natural and unnatural histories. In Jeff, Good(Ed.), *Linguistics universals and language change* (pp. 79-107). Oxford.
- Barker, M. A. R. 1964. Klamath grammar. UCPL 32,
- Nespor, Marina, and Irene Vogel. 1986. *Prosodic Phonology*. Dordrecht: Foris.
- Reinhart, Tanya. 1981. Definite NP anaphora and c-command domains. *Linguistic Inquiry* 12, 605-405.
- Selkirk, E. 1986. On derived domains in sentence. *Phonology* 3, 371-405.

【국문초록】

중세국어의 사잇소리는 운율어(구) 경계에서 자연스럽게 후두 폐쇄음으로 나타나는데, 앞 음절말의 성질에 따라 ‘ㄱ, ㄷ, ㅂ, ㅃ, ㅇ, ㅅ, ㅈ’ 등으로 다양하게 표기된다. 또한 사잇소리는 명사 뒤, 부사 뒤, 조사 뒤, 어미 뒤, 어간 뒤 등 거의 모든 환경에 분포할 수 있다. 사잇소리의 본질은 후두 폐쇄음으로 자연 선행 음절을 폐쇄시킨다. 운율어 경계는 고저 승강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그 자리에 기정치로서 후두 폐쇄음이 발생하는 것은 모든 언어에 공통되어 있다. 이 후두 폐쇄음인 사잇소리를 표면에 실현시킴으로써 즉, 운율어(구) 경계를 명확하게 드러냄으로써 청자로 하여금 의미 파악을 쉽게 해 줄뿐 아니라, 경계 앞의 성분을 초점화하여 부수적인 강조의 효과도 얻게 된다.

성분통어 제약을 위배하거나 OCP(XP) 제약을 준수하는 성분들은 각각 독립된 하나의 운율구를 이루므로 그 경계에 사잇소리 표기가 나타날 수 있다. 체언 앞에 오는 인용문의 정동사 어미 ‘-다, -라’가 ‘-닷, -랏’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이들 사이에 억양구 경계가 성립하므로 가능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표기법 측면에서도 띄어쓰기가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잇소리 표기는 독자가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준다. 그러므로 중세국어의 사잇소리는 단순한 음운현상에 그치지 않고 담화표지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

주제어: 중세국어의 사잇소리, 후두폐쇄음, 운율경계 표시, 담화표지

【Abstracts】

Orthography and function of the 'Sait-Sori' (ㅅ) in Middle Korean

Park, Jong-hee · Kwon, Pyong-ro

The entity of 'Sait-Sori ㅅ' has long been discussed by many Koreanists and so many opinions have also been proposed. Among them, the marker of compound, modifier, determiner, emphasis and resolver of unnatural syntactic combination were mostly accepted until now. To solve this problem I pay attention to the relationship between laryngeals and prosodic boundaries. In Middle Korean 'Sait-Sori ㅅ' as a laryngeal was positively revealed at the boundaries between two prosodic words(phrases) on the surface and so the efficiency of communication had greatly been fortified.

Key words: Sait-Sori, discourse marker, prosodic boundaries

이 논문은 2009년 12월 3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0년 1월 11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0년 2월 1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